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6



#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4.02~2026.04.08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3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 분야    | 주요 키워드                            |
|-------|-----------------------------------|
| 정치·행정 | 예비후보(경선), 미래, 전환, 희생자, 차량         |
| 경제·관광 | 가격(상승/취발유/경유),항공, 관광객(여행), 금융, 기반 |
| 지역·사회 | 희생자(평화/역사/추념식), 차량, 사건, 경기, 대응    |

※ 분석 기간 : 26.04.02.~26.04.0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       |          |  |
|-------|----------|--|
| 정치·행정 | 예비후보(경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들의 제2공항 갈등 해소 설전</li> <li>- 민주당 비례대표 및 도의원 후보 공모와 경선 절차 가속</li> <li>- 국민의힘 후보 부재와 탈당에 따른 무소속 출마 확산</li> </ul>                |
|       | 미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통한 우주 경제 거점화</li> <li>-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RISE 사업의 앵커 체계 전환</li> <li>-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투자 중심 경제 시스템 전환 공약</li> </ul>        |
|       |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디지털 대전환 2년차 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 일상 혁신</li> <li>- 에너지 주권 확보 및 산업 구조 개편을 담은 사회적 대전환</li> <li>-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및 멸실 차량 비과세 행정 전환</li> </ul>         |
|       | 희생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8주기 4·3 희생자 추념 및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의지</li> <li>-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을 통한 DNA 시료 확보 성과</li> <li>-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협력 강화</li> </ul> |
|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수소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가속</li> <li>-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공직자 차량 2부제 강화 시행</li> <li>-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의 높은 호응과 모바일 전환 추진</li> </ul>                |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       |               |  |
|-------|---------------|--|
| 경제·관광 | 가격(상승/취발유/경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 리터당 2000원대 동반 돌파</li> <li>-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세 반등</li> <li>-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주요 월동채소 가격 하락세</li> </ul>             |
|       | 항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건의</li> <li>- 5월 항공 유류할증료 사상 첫 3만원 돌파 및 여행 부담 증대</li> <li>- 제주~인천 정기 항공 노선 10년 만의 재개 및 시범 운항</li> </ul>        |
|       | 관광객(여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관광객의 개별여행 주류화와 관광 수익성 하락 추세</li> <li>- 국제 정세에 따른 크루즈 관광 위축과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li> <li>-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li> </ul>         |
|       | 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저소비 '삼중고'에 따른 제주 제조업 경기 전망 부진</li> <li>- 제주은행의 'DJ Bank' 공개를 통한 디지털 기업금융 혁신 선도</li> <li>-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법원 경매 물량의 기록적 폭증</li> </ul> |
|       |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최대 민간 우주지상국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구축</li> <li>-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한 미래 산업 플랫폼 기반 강화</li> <li>- 공공기관 주도의 주거 안정 기반 확충 및 대규모 단지 정상화</li> </ul>       |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       |                |   |
|-------|----------------|---|
| 지역·사회 | 희생자(평화/역사/추념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봉행</li> <li>-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및 이름 찾기</li> <li>- 4·3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li> </ul>                      |
|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및 항·포구 인근 차량 해상 추락 사고</li> <li>- 공직자 차량 2부제 및 민원인 5부제 시행</li> <li>- 경운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 경영난</li> </ul>                 |
|       | 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집 위장 불법 성인 PC방 운영자 검거</li> <li>- 합의금을 노린 부부의 강간 무고 및 허위 신고</li> <li>-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강매 사기 범죄 기승</li> </ul>               |
|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부천 FC 간의 갈등 재점화</li> <li>-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 경기 개막</li> <li>-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li> </ul>        |
|       |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강풍 및 호우 특보에 따른 긴급 재난 대응</li> <li>-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을 통한 해양 사고 대응 강화</li> <li>- 제주형 SFTS(진드기 감염병)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li> </ul> |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4월 2일~4월 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80건임
  - 정치·행정 분야 528건, 경제·관광 249건, 지역·사회 303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보(경선), 미래, 전환, 희생자, 차량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              |  |
|-------|--------------|--|
| 정치·행정 | 예비후보<br>(경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들의 제2공항 갈등 해소 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인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3인은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히 도민 의견 수렴 방식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 및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놓고 후보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날 선 비판과 반박을 주고받음.</li> <li>· 문대림 후보는 도민 결정권 강화를 위해 참고용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오영훈 후보는 현행법상 국책사업의 주민투표 불가론을 내세우며</li> </ul> </li> </ul>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 <p><b>예비후보<br/>(경선)</b></p> | <p>입법 발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위성곤 후보는 과거 찬성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본인의 입장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는 등 경선 승리를 향한 후보들의 정책 논리와 정치적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임.</p> <p>- <b>민주당 비례대표 및 도의원 후보 공모와 경선 절차 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여성 9명과 남성 10명 등 총 19명의 예정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과거 당선 이력이 있는 경우 출마를 제한하는 당헌 규정에 따라 일부 후보가 불출마를 결정하는 등 당내 인적 쇄신과 공정한 후보 선출을 위한 엄격한 자격 심사 및 경선 토대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함.</li> <li>· 도의원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제주시 용담1·2동과 오라동 등 주요 선거구에서 다수의 예비후보가 접수하며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재심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가 구제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본경선을 향한 긴박한 움직임과 함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현장 밀착형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음.</li> </ul> <p>- <b>국민의힘 후보 부재와 탈당에 따른 무소속 출마 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을 선거구 등 일부 지역에서 도의원 후보 신청자가 전무하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공천 관리 방식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고기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등 선거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과 조직력 약화 문제에 직면하여 당내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임.</li> <li>· 노형동을 선거구의 고민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주요 선거구에서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 중심의 선거 구도에서 인물론 중심의 무소속 강세 지형으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지방선거 본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내 갈등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li> </ul> |
|   | <p><b>미래</b></p>            | <p>- <b>아시아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통한 우주 경제 거점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인 '아시아 스페이스 파크(ASP)'가 공식 개관하면서 제주가 위성 데이터 수신부터 제조, 발사, 관제까지 우주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했으며, 이는 산업 경제 불모지였던 제주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음.</li> <li>· 제주도는 우주 산업의 성과가 도민의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술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위성 기반 올인원 서비스 및 차세대 레이저 통신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li> </ul> <p>- <b>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RISE 사업의 앵커 체계 전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개편에 발맞춰 제주도가 627억 원 규모의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전면 재구조화했으며, 이는 대학이 지역 성장의 견고한 닻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의 외부</li> </ul>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 <p><b>미래</b></p> | <p>유출을 막고 지역 내 정착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행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도내 대학들이 전략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단순 여행 중심에서 교육과 연구, 산업 연계로 진화한 '런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핵심 인재를 직접 길러내고 이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대학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함.</li> </ul> <p><b>-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투자 중심 경제 시스템 전환 공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연간 100억에서 200억 원 규모의 재원에 기반한 '제주 투자청' 설립을 제안하며 도내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후속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관광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그린에너지, 관광테크,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위주로 제주 경제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기업이 떠나지 않고 투자가 몰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함.</li> <li>· 오영훈 후보는 우주 산업과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위성곤 후보는 제주를 글로벌 AI 허브로 키우기 위한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 유치 등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도정의 핵심 과제가 단순 관리형 행정에서 미래 가치 창출형 행정으로 크게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기대됨.</li> </ul>  |
|   | <p><b>전환</b></p> | <p><b>- AI·디지털 대전환 2년차 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 일상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대전환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79개 세부 사업에 총 602억 원을 투입하며, 마을 식당에 스마트 주방 로봇을 도입하고 감귤 가공 공장에 AI 기반 자율 제조 공정을 구축하는 등 전통 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과 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상의 대전환을 본격화함.</li> <li>· 재난 및 교통 분야에서 사전 대응 중심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 체계를 확립하며, 전 직원 대상 AI 교육 확대와 행정 서비스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기술 발전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지방 정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음성 복제 등 AI 악용 범죄로부터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씀.</li> </ul> <p><b>- 에너지 주권 확보 및 산업 구조 개편을 담은 사회적 대전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곤 후보는 관광과 농업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제주의 바람을 도민의 공공재로 삼아 수익을 배당하는 '에너지 소득 환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3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도민이 자산의 주인이 되고 행정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밀착형 행정 체계로의 근본적인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음.</li> <li>· 오영훈 후보는 에너지 연금을 통한 기본소득 완성과 4대 보험 연계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등 복지와 경제를 결합한 기본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며,</li> </ul>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전환</b></p>  | <p>문대림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종결하고 도민이 직접 미래를 결정하는 도민 주권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포하는 등 후보들 모두 과거의 낡은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제도적 변화와 가치 전환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함.</p> <p>-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및 멸실 차량 비과세 행정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되거나 폐차되어 형체가 없으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되던 차량들을 전수 조사하여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실용적인 행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됨.</li> <li>·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필증 교부까지 전 과정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도입 시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조치로 평가됨.</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 <p style="text-align: center;"><b>희생자</b></p> | <p>- 제78주기 4·3 희생자 추념 및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8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엄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유족과 도민의 노력이 특별법 제정과 배·보상이라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강조하며 위로를 전함.</li> <li>·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4·3 특례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 책임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4·3의 완전한 해결이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역사적 진실 규명의 길을 공고히 함.</li> </ul> <p>-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을 통한 DNA 시료 확보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협업하여 실시한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통해 총 403건의 유전자(DNA) 시료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행정 기관과 군부대의 긴밀한 협력 및 상황실 운영, 탐문 활동 차량 지원 등 전방위적인 현장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신원 확인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줌.</li> <li>· 확보된 시료는 정밀 분석을 거쳐 발굴된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가족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방침이며, 거동이 불편한 유족을 위해 자택 방문 채취 키트를 발</li> </ul> |

|                     |                   |  |
|---------------------|-------------------|--|
|                     | <p><b>희생자</b></p> | <p>송하는 등 한 명의 희생자도 잊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p> <p><b>- 4.3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협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의 신원 확인 작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묻혀 있던 사연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유족들의 해묵은 한을 풀고 실질적인 치유로 이어지게 하려는 도정과 국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공식화한 의미 있는 행보임.</li> <l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 추진에 맞춰 발굴 유해의 임의 화장을 금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직권재심 확대와 가족관계 정정 등 명예회복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도정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li> </ul>   |
| <p><b>정치·행정</b></p> | <p><b>차량</b></p>  | <p><b>- 그린수소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 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약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소전기차 넥쏘와 수소 버스의 민간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수소차 구매 가격을 하이브리드 차량 수준으로 낮춰 도민들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 배출 제로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친환경 이동 수단 대중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음.</li> <li>· 그린수소 충전 요금을 킬로그램당 최대 2,000원 인하하여 유지비 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함덕 충전소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내 충전 인프라를 6개소로 단계적 확충할 계획이며,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소 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li> </ul> <p><b>-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공직자 차량 2부제 강화 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도 본청과 산하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 5부제보다 강화된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격 시행했으며, 이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긴급 대응 조치의 일환임.</li> <li>·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철저히 적용하여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임산부 차량은 제외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와 함께 행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세심한 관리가 병행되고 있음.</li> </ul> <p><b>- 청소년 버스 무료 정책의 높은 호응과 모바일 전환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제주 청소년 노선버스 무료 정책이 누적 이용 약</li> </ul> |

|       |    |  |
|-------|----|--|
| 정치·행정 | 차량 | <p>483만 건을 돌파하고 대상자의 68.6%가 실제 이용하는 등 도민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비와 교통비 부담을 연간 41억 원가량 줄여주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보전 효과와 보편적 복지 실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음.</p> <p>오는 6월부터는 기존 실물 카드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교통카드'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분실 위험을 없애고 실시간 이용 내역 확인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카드 제작 및 발급에 드는 행정 비용 절감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요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p>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가격(상승/휘발유/경유),항공, 관광객(여행), 금융, 기반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               |  |
|-------|---------------|--|
| 경제·관광 | 가격(상승/휘발유/경유) | <p>- 제주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 리터당 2000원대 동반 돌파</p> <p>·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동시에 2000원대를 돌파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독보적인 최고가를 유지함에 따라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임계점에 달하고 관광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임.</p> |
|-------|---------------|--|

|       |                      |   |
|-------|----------------------|---|
| 경제·관광 | <p>가격(상승/취발유/경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고유가 억제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 인상분이 소매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추세이며, 도내 주유소 간에도 리터당 수백 원의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등 불투명한 유통 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 조사 결과가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li> <li>- <b>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세 반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았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류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2.1%대로 올라섰으며, 특히 경유가 13.0%, 등유가 10.6% 급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어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와 내수 소비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는 엄중한 경제적 국면임.</li> <li>· 축산물 가격이 가축전염병 여파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산물 역시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생활물가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도민들의 체감 물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li> </ul> </li> <li>- <b>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주요 월동채소 가격 하락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 면적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제주산 양배추와 조생양파, 월동무의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였으며,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 비축 물량의 폐기와 선제적인 수급 조절 대책을 촉구하는 등 농심이 타들어 가는 현장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강력히 전달되고 있음.</li> <li>· 농산물 가격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의 상승폭을 일부 억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농가들은 비료와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관기관들이 시장 격리와 소비 촉진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가격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임.</li> </ul> </li> </ul> |
|       | <p>항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건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도 관광협회가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를 방문하여 항공기 대형화 유도 및 성수기 슬롯 운영의 탄력적 적용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특히 올해 하계 공급석이 작년 대비 2.38% 감소하면서 도민의 일상적 이동권 침해와 관광객 유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단순 시장 논리가 아닌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차원에서의 특수성 인정을 요청함.</li> <li>·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슬롯 재배분 이후 제주 노선의 좌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봄철 수학여행과 하반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항공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과 제주~인천 노선의 조기 안착 등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가 추진되고 있음.</li> </ul> </li> <li>- <b>5월 항공 유류할증료 사상 첫 3만원 돌파 및 여행 부담 증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의 여파로 5월 발권분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3만 41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보다 무려 4.4배 폭등하였으며, 이는 할증료</li> </ul> </li> </ul>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항공</b></p>      | <p>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왕복 항공료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5월 황금연휴를 기대하던 제주 관광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 부담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할인 요금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월 이후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관광객들의 예약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급 좌석이 한정된 상황에서 미리 발권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어 항공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주 경제의 큰 축인 관광객 총량 감소와 지역 내수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li> </ul> <p><b>- 제주~인천 정기 항공 노선 10년 만의 재개 및 시범 운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이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 노선을 주 2회 일정으로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제주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제주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독립적 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li> <li>· 이번 노선 신설은 국토교통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도민들의 해외 여행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노선이 완전히 안착하려면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노선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경제·관광</b></p> | <p style="text-align: center;"><b>관광객(여행)</b></p> | <p><b>- 외국인 관광객의 개별여행 주류화와 관광 수익성 하락 추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9명 이상이 개별여행객(FIT)으로 나타나며 10년 전 대비 시장 구조가 완전히 개편되었으나 1인당 지출 경비는 2015년의 절반 수준인 9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이는 2030 젊은 층 중심의 관광객들이 면세점보다는 시내 상점가나 전통시장에서 저단가 간식류를 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나타난 질적 성장의 한계점임.</li> <li>· 중국인 단체객 위주의 쇼핑 관광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객의 취향을 반영한 도심 관광과 로컬 체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늘리고 지역화폐 활용과 연계된 고유한 미식 관광 모델이나 체험형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 지출액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li> </ul> <p><b>- 국제 정세에 따른 크루즈 관광 위축과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를 모았던 서귀포 강정항의 준모항 크루즈 운영이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6% 급감하였으며, 특히 제주 기항 크루즈의 80% 이상이 중국 출발 노선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한 제주 관광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과제로 부상함.</li> <li>· 크루즈 관광객의 씀씀이 또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쇼핑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제주도는 멕시코 대규모 인센티브단 유치와 몽골 관광 시장 공략 등 중남미와 중앙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국제 정세 회복 시 크루즈 유입 정상화와 함께 체류형 크루즈 관광 모델인 '플라이 앤 크루즈'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내 실질 수익을 창출해야 함.</li> </ul> |

|                     |                       |  |
|---------------------|-----------------------|--|
|                     | <p><b>관광객(여행)</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약자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17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열린 관광 페스타'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제주를 무장애 관광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와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포용적 관광 문화를 확산하고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제주 관광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음.</li> <li>·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실천하며 곳자왈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협약과 어린이 대상 생태 보존 프로그램인 '제주 프로미스키퍼'를 운영하는 등 청정 자연 자산의 보전과 관광 활용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브랜드 '카름스테이'와 전담 여행사 육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음.</li> </ul> </li> </ul>   |
| <p><b>경제·관광</b></p> | <p><b>금융</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저소비 '삼중고'에 따른 제주 제조업 경기 전망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분쟁에 따른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가 겹치면서 제주지역 제조업체들의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76에 그쳤으며, 기업들은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과 '소비 회복 둔화'를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실제 10곳 중 4곳 이상의 기업이 기존의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보수적 행보를 보임.</li> <li>· 실적 지표 역시 체감 경기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 부문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조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인 금융 지원과 비용 보전 대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공급망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과 함께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공적 보증 지원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li> </ul> </li> <li>- 제주은행의 'DJ Bank' 공개를 통한 디지털 기업금융 혁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이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연동된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 Bank'의 첫 솔루션을 서울에서 전격 공개하며 별도의 인터넷뱅킹 접속 없이 기업의 업무 흐름 안에서 계좌 개설부터 자금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혁신적 금융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존 대면 중심 절차와 서류 부담 및 시간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도내외 기업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임.</li> <li>·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금을 예측하고 추천하는 'AI CFO'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자율형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예고하였으며, 특히 획일적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우량 고객 발굴과 잠재 위험 식별을 정교화하고 폐업률 상위 업종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은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li> </ul> </li> <li>-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법원 경매 물량의 기록적 폭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의 소비 심리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지난달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901건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8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특히 낙찰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여러 차례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li> </ul> </li> </ul> |

|       |    |  |
|-------|----|--|
| 경제·관광 | 금융 | <p>온 물건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적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하강 국면이 심각한 수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경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은 과거 활황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가수요 물량들이 고금리와 침체기를 견디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며, 미분양 주택 또한 역대 최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분양 전망 지수마저 급락함에 따라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 기관의 대출 채권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의 연쇄적인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li> </ul>  |
|       | 기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시아 최대 민간 우주지상국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우주 스타트업 컨텍이 제주시 한림읍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지상국인 ASP를 개관하며 20여 개국 글로벌 파트너사와 연계된 우주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였으며, 총 200억 원이 투입된 첨단 시설을 통해 위성 데이터의 수신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분석 및 맞춤형 가공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쾌거를 거둠.</li> <li>· 이번 지상국 개관을 시작으로 위성 제조, 해상 발사, 관제 및 데이터 활용에 이르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기존 전파 방식보다 월등히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광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선점하고 첨단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유망 기업 유치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제주의 신성장 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됨.</li> </ul> </li> <li>- <b>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한 미래 산업 플랫폼 기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회 제주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글로벌 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전기차 생산, 운영,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된 미래 산업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전기 선박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제주가 전 세계 모빌리티 정책을 결정하는 글로벌 허브임을 다시금 입증함.</li> <li>· 북한 당국에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모빌리티를 통한 남북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태양광과 풍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와 대용량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간 중심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기술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함.</li> </ul> </li> <li>- <b>공공기관 주도의 주거 안정 기반 확충 및 대규모 단지 정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 제주지역본부가 올해 1172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동부지구 도시 조성 및 행복주택 건설을 본격화하고 우량 주택 매입 임대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통해 도민 주거 안정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화북2동 일대 개발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용지와 대규모 민간 임대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주거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li> </ul> </li> </ul> |



|                     |                              |  |
|---------------------|------------------------------|--|
|                     | <p><b>희생자(평화/역사/추념식)</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 당시 아버지를 잃고 평생 다른 집 호적에 올라 살아야 했던 고계순 어르신이 70여 년 만에 친부의 딸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절절한 사연이 추념식에서 소개되어 큰 울림을 줌.</li> <li>· 4·3특별법 개정 특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 509건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억울한 유족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노력이 지속됨.</li> </ul> <p><b>- 4·3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념식 당일 평화공원 인근에서 일부 보수 단체의 역사 왜곡 집회가 열려 유족들과 마찰이 빚어졌으며, 이에 4·3 단체들은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li> <li>· 오영훈 지사는 4·3을 왜곡·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li> </ul>   |
| <p><b>지역·사회</b></p> | <p><b>차량</b></p>             | <p><b>- 방파제 및 항·포구 인근 차량 해상 추락 사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방파제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 몰던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음.</li> <li>· 최근 3년간 제주시 관할 항·포구 등에서 총 16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운전 중 시야 분산 금지와 서행 등 해안가 안전 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고 주의보를 발령함.</li> </ul> <p><b>- 공직자 차량 2부제 및 민원인 5부제 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도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5부제가 4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li> <li>·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되나 일반 차량은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와 소나무 430만 그루 식재와 맞먹는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함.</li> </ul> <p><b>- 경유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 경영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수확여행 성수기를 맞은 제주 전세버스 업계가 운행할수록 적자를 보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유가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함.</li> <li>· 제주도의 친환경차 교체 정책에 대해 업계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 제외 문제와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연료비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탁상행정이라 지적함.</li> </ul> |
|                     | <p><b>사건</b></p>             | <p><b>- 가정집 위장 불법 성인 PC방 운영자 검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일도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해 온 60대 업주가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적발됨.</li> <li>· 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 역할을 한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이 압수되었으며, 경찰은 도심 주택가로 숨어든 지능화된 불법 게임장에 대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li> </ul>   |

|              |   |
|--------------|---|
|              | <p>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합의금을 노린 부부의 강간 무고 및 허위 신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경찰 20여 명을 출동하게 한 30대 여성과 40대 남편 부부가 검찰 수사에서 구속 기소됨.</li> <li>·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전에 공모한 정황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으며,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국가 수사 자원을 낭비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음.</li> </ul> </li> <li>- <b>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강매 사기 범죄 기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해 숙박업소 등에 소방 점검 통보 후 특정 업체의 소화기 등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과태료로 압박하는 사기 의심 신고가 최근 사흘간 10건 이상 접수됨.</li> <li>· 실제 금전 피해 금액이 1,0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 주의를 당부하고 소방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제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음을 재차 강조함.</li> </ul> </li> </ul>  |
| <p>지역·사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부천 FC 간의 갈등 재점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고 이전 문제로 얽힌 두 팀의 맞대결 이후, 일부 부천 팬들이 경기장 로고를 훼손하고 팬 스토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폭력적 행위가 알려지며 K리그 흥행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됨.</li> <li>· 특히 원정 팬들이 제주 출신 부천 소속 선수들에게 제주 팬 인사를 제지하거나 과거 부천 소속이었던 제주 선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응원 문화가 비판을 받으며 징계 논의가 이어짐.</li> </ul> </li> <li>- <b>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 경기 개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 최고 권위의 청소년 축구 축제인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막을 앞두고 대회기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며 지역 스포츠계 활기를 예고함.</li> <li>· 도내 초·중·고교 팀들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 축구 유망주 발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도민들이 함께 즐기는 응원 문화의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 화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로 평가됨.</li> </ul> </li> <li>- <b>대규모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사흘간 총 3만 3,000명이 방문하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제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함.</li> <li>·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 정찰제 도입과 제주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등 세심한 노력을 통해 대규모 인파 유입이 실질적인 지역 소비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축제의 모범 사례를 남김.</li> </ul> </li> </ul> |
|              | <p>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강풍 및 호우 특보에 따른 긴급 재난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과 많은 비로 항공편 150여 편이 결항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당국과 공항공사는 체류객 지원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함.</li> <li>· 기상악화로 인한 하늘길 마비 상황에서 제주도는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조기</li> </ul> </li> </ul>   |

|       |    |   |
|-------|----|---|
| 지역·사회 | 대응 | <p>가동하여 야간 체류객들의 원활한 귀가와 숙소 이동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대책을 시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을 통한 해양 사고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역의 대형·특수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 화순항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가 공식 신설되어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즉각 출동 체계가 구축됨.</li> <li>· 기존 부산 본단 관할로 인한 이동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심해 잠수 기법과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제주 바다의 환경에 최적화된 고난도 수중 수색 및 구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li> </ul> </li> <li>- 제주형 SFTS(진드기 감염병)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2년간 축적된 환자 데이터와 기상 자료를 분석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참진드기 밀도와 SFTS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자동화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 연구를 완수하고 본격 가동함.</li> <li>· 전국 평균 대비 4.4배 높은 제주 지역 SFTS 발생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게시판과 QR코드로 위험 수준을 실시간 공개하며, 고사리 채취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도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섬.</li> </ul> </li> </ul>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